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나서

정읍시는 2월부터 9월까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 공을 위해 지역 내 지적기준점 7,282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 관리와 지도 제작, 각종 건설공사 등을 위해 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06점, 지적도근점 7,033점 총 7,282점이 설치되어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양호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측량자가 찾기 쉽도록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60만원 지급

정읍시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년 이상 도내 주소로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작물재배업자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 양봉농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다.

또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수산 종자생산업 허가 또는 내수면 어업 신고가 유효한 어가가 대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제 이어지는 고창 만들 것”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심덕섭 군수, 출입기자 나눔대화... 고창 방문의 해 · 고향사랑기부제 등 사업설명

심덕섭 고창군수가 “1년내내 축제가 이어지는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일 오전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새해 첫 출입기자 나눔대화를 열었다. 먼저 심 군수는 “최근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고창방문의 해와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심 군수는 연초부터 진행했던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고창사랑기부제 △노을대고 △군민과의 나눔대화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관련 최근 KBS2 인기예능 프로그램 1박2일 등에 고창군 주요 관광지가 소개되며 지역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선운사에서 무료입장을 결정해 주는 등 지역 전체가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마스크 해제 시점과 맞물려 폭발하는 전국의 관광수요를 사로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우선 4월초부터 고창읍 석정온천인근 화려한 벚꽃대길길을 활용한 벚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청소년 맨스경연대회와 열기구 축제, 철새 탐조대회 등을 잇따라 열며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고창 방문의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시행 한달 만에 370명의 기부자와 7000만원의 기부액 돌파로 초반 분위기 선점에 성공했다.

고창군의 3만원대 답례품으로는 풍천장어가 다연 앞장서고 있다. 실제 고향풍천장어는 ‘고향사랑’ 사이트 내 전국의 장어 답례품 19곳 중 가격과 품질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는 고창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약의 주춧돌을 놓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군의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11개월 70만원, 12개월~23개월 35만원)나 양육수당(24개월~35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과는 별개로 시 자체 예산 24억 원을 투입해 0~59개월 이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아동의 부모 1,582명에게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2018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매월 25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개월간 총 600만 원가

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희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출산비용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1년내내 축제가 이어지는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 ‘사랑의 온도탑’ 최종 온도 232도 ‘달성’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마무리... 8억2724만540원 모금 기록

정읍시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통해 최종 모금액 8억2,724만540원을 달성하며 62일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억5,550만원을 목표로 희망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이웃사랑을 위한 범국민 모금 운동으로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씩 올라간다.

그 결과 8억2,724만540원을 모금해 목표액 3억5,550만 원 대비 232.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 정읍시민들의 팔팔 끓는 이웃사랑의 저력을 뽐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속적인 코로나 19 여파와 물가상승, 경기 불황이 겹쳐 모금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기업, 단체들이 동참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캠페인 첫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정읍지회에서 1천만원을 쾌척하며 캠페인 시작을 알렸고,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 김태선 회장과 성광교회, 가족분노협의회,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 (유)동방이노베이션, 정우회에서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와 정읍소령교회에서 700만원, 주식회사 거안(대표 박영춘)과 에이스안전유리가 1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큰 기부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중심의 자발적인 참여가 빛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돈을 기부한 어르신들과 풀리마켓 수익금과 용돈을 모아 전달한 어린이들 등 지난해보다 1,136건이 증가한 총 2,885건의 기부가 이어졌다.

이렇게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게 된다.

이화수 시장은 “성공적인 캠페인 결과는 정읍시민의 따뜻한 정으로 만들어 낸 아름다운 기적”이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동행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농기센터, 생활개선회원 농업인 순회교육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례란)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부안군 12개읍면 생활개선회원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을 추진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육에 참가한 생활개선회원들은 안전교육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농작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신체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관심을 가졌고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시연하고 실습하였다. 교육을 통해 농작업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질환 발생의 원인을 파악,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에 농



업인들의 교육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인 교육으로 안전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아이돌보미 간담회 개최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군 아이돌보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2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아이돌보미 종사자 4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는 1:1 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는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 간 돌봄활동 현장의 어려움과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